

2015. 11. 9. ~ 11. 15. 주간

59
VOL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6년 토마토·수박 재배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나주배, ‘맛품질’ 우수해 덴마크 수출 가능성”
국내산 젓소 정액, 우간다에 2년 연속 수출
장흥산 표고 백화고, 홍콩 첫 수출길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채종이 어려운 약초 ‘지치’의 채종, 안전 재배법 확립
FTA, 생산비 절감 등으로 발작물 경쟁력 강화를
토마토퀘양병 방제, 재배 환경 위생이 중요

정책동향

양파농가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하세요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 할 수 있어요!

해외 농업정보

미국, 자연방사를 통해 생산된 계란 수요 확대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2015. 11. 9.)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8

- 기압골의 영향으로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은 전라남북도에, 17일은 전라남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9도, 최고기온: 13~17도)보다 조금 높겠음
- 강수량은 평년(1~2mm)과 비슷하겠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11

- 토마토, 11~12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 수박, 11~12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12

▶ 양념채소 : 마늘 · 대파

- 마늘 : 10월(5,191원/kg) 대비 강보합세가 전망
- 대파 : 10월 대비 보합세가 전망되며 상품은 1,400 ~1,700원/kg, 중품은 1,200~1,500원/kg으로 전망

▶ 과 일 : 귤 · 단감

- 귤 :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200~1,400원/kg으로 전망
- 단감 : 전년과 비슷한 13,000~15,000원/상품 10kg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13

- ▶ 여수시, '기능성잡곡 산업 육성 시범사업' 평가회 열어
- ▶ 광양시,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기관 대상 수상
- ▶ 담양군, (주)신세계푸드와 업무협약 체결
- ▶ 고금면 유자 맛과 향이 탁월해 소비자에게 인기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18

- ▶ “나주배, ‘맛·품질’ 우수해 덴마크 수출 가능성”
- ▶ 국내산 젓소 정액, 우간다에 2년 연속 수출
- ▶ 부산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유관기관 MOU체결
- ▶ 장흥산 표고 백화고, 홍콩 첫 수출길

❁ 농업기술 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23

- ▶ 채종이 어려운 약초 '지치'의 채종, 안전 재배법 확립
- ▶ FTA, 생산비 절감 등으로 발작물 경쟁력 강화를
- ▶ 토마토퀘양병 방제, 재배 환경 위생이 중요
- ▶ 병과 재해에 강해 수량 많은 콩, 대풍2호 개발
-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4호 발표
- ▶ 국산 조직배양 묘목 대량생산 기술력 확보
- ▶ '버섯 수출' 국제무대에서 신뢰도 상승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32

- ▶ 순우리말 농업용어 사용해요
- ▶ 양파농가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하세요
- ▶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 할 수 있어요!
- ▶ '마음모아 희망농촌, 행복담아 미래농업'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39

- ▶ 미국, 자연방사를 통해 생산된 계란 수요 확대
- ▶ 미국, 엘니뇨현상에 따른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세 전망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1. 9.(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금리인상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이 떠난 후 7개월 만에 1%이상 상승한 달러화의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함.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인해 두달 래 최저가격에 인접함. 이러한 달러화 강세는 옥수수 풍작과 더불어 미국산 곡물이 세계에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9월 24일 최저가격 계약이후 0.4% 강보합 마감하였으나, 내주 보고될 USDA 월간 보고서에서 밀, 옥수수와 함께 풍작 등으로 인해 기말재고량을 확대 보고될 전망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맥주보리 생산비절감 경영모델화 사업 시연회**

- 일 시 : '15. 11. 13.(수) 14:00~17:00
- 장 소 :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1009-4번지
- 계획인원 : 60명(농업인 및 관계 공무원)
- 주요내용
 - 신품종 맥주보리 육성 현황 및 품종별 특성 교육
 - (시연) 승용 측조시비 다기능 파종기 활용 생산비 절감
 - (전시) 승용 측조시비 다기능 파종기, 트랙터 부착형 동력 진압기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이벤트**

- “우리 농식품으로 11을 만들어 주세요” -
- 참여방법 : 농식품으로 ‘11’을 만든 후 인증 샷을 페이스북, 카카오프로필에 해시태그(농업인의날_11)를 걸어 올려주세요.
- 기 간 : '15. 11. 9. ~ 11. 13.
- 당첨자발표 : '15. 11. 17.(화)
- 상 품 : 농촌관광사랑상품권 10만원권 등 다수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1. 9.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9)	1주일전 (1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7,200	37,000	38,600	41,800	42,167	↓11.0	↓11.8
	콩(백태)	35kg	144,400	144,400	137,000	137,000	199,000	↑5.4	↓27.4
	고구마(밤)	10kg	22,400	21,800	22,600	20,200	22,307	↑10.9	↑0.4
	감자(수미)	20kg	25,400	25,000	24,800	20,000	27,577	↑27.0	↓7.9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400	380	473	-	619	↑-	↓35.4
	양배추	10kg	4,000	3,900	5,350	4,525	6,732	↓11.6	↓40.6
	오이(다다기계통)	10kg	22,667	20,667	19,333	25,444	20,525	↓10.9	↑10.4
	애호박	8kg	18,400	15,800	13,150	24,150	22,470	↓23.8	↓18.1
	토마토	10kg	16,800	17,200	22,100	18,100	28,160	↓7.2	↓40.3
	무(고랭지)	20kg	8,500	8,900	8,500	-	12,930	↑-	↓34.3
	당근	20kg	27,400	27,600	33,950	20,350	36,873	↑34.6	↓25.7
	건고추(화건)	60kg	816,000	816,000	827,000	860,000	928,000	↓5.1	↓12.1
	풋고추	10kg	28,600	26,200	18,950	59,500	50,083	↓51.9	↓42.9
	마늘(난지)	10kg	55,000	55,000	50,000	33,200	36,167	↑65.7	↑52.1
	양파	20kg	31,400	28,600	28,400	10,400	18,163	↑201.9	↑72.9
	대파	1kg	1,690	1,670	1,863	1,070	1,640	↑57.9	↑3.0
	파프리카	5kg	13,600	12,800	15,000	25,300	28,060	↓46.2	↓51.5
	방울토마토	5kg	10,200	10,200	12,850	10,650	14,920	↓4.2	↓31.6
	수박	1개	7,400	7,900	10,000	7,300	9,160	↓1.4	↓19.2
과 일 류	사과(홍로)	15kg	-	28,000	30,450	-	-	↑-	↑-
	배(신고)	15kg	40,200	38,000	40,550	29,350	36,453	↑37.0	↑10.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9)	1주일전 (1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0,000	530,000	530,000	510,000	545,900	↑3.9	↓2.9
	들깨	45kg	418,000	418,000	422,000	404,800	370,500	↑3.3	↑12.8
	새송이버섯	2kg	8,200	8,200	7,900	7,000	8,150	↑17.1	↑0.6
축산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25	7,724	7,619	6,758	6,453	↑15.8	↑21.3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20	1,746	1,885	1,969	1,672	↓7.6	↑8.9
	닭고기	1kg	5,252	5,136	4,877	5,625	5,738	↓6.6	↓8.5
	계란(특란)	30개	5,638	5,649	5,712	5,965	5,605	↓5.5	↑0.6
	우유	1리터	2,550	2,551	2,547	2,546	2,385	↑0.2	↑6.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1. 9.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449 천원	5,744 천원	4,520 천원	↓ 5.1 ↑ 20.6
	거세	6,710 "	6,064 "	5,323 "	↑10.7 ↑ 26.1
송아지 (6~7월)	암	2,403 "	2,575 "	1,851 "	↓ 6.7 ↑ 29.8
	수	2,878 "	2,891 "	2,454 "	↓ 0.4 ↑ 17.3
육우(600Kg)	3,382 "	3,213 "	3,302 "	↑ 5.3 ↑ 2.4	
젖소수송아지(7일령)	307 "	307 "	26 "	- ↑1080.8	
돼지(110kg)	363 "	328 "	438 "	↑10.7 ↓ 17.1	
육계(원/kg)	1,369 원	1,151 원	1,790 원	↑18.9 ↓ 23.5	
계란(원/특란10개)	1,124 "	1,112 "	1,432 "	↑ 1.1 ↓ 21.5	
오리(원/kg)	2,166 "	2,166 "	2,16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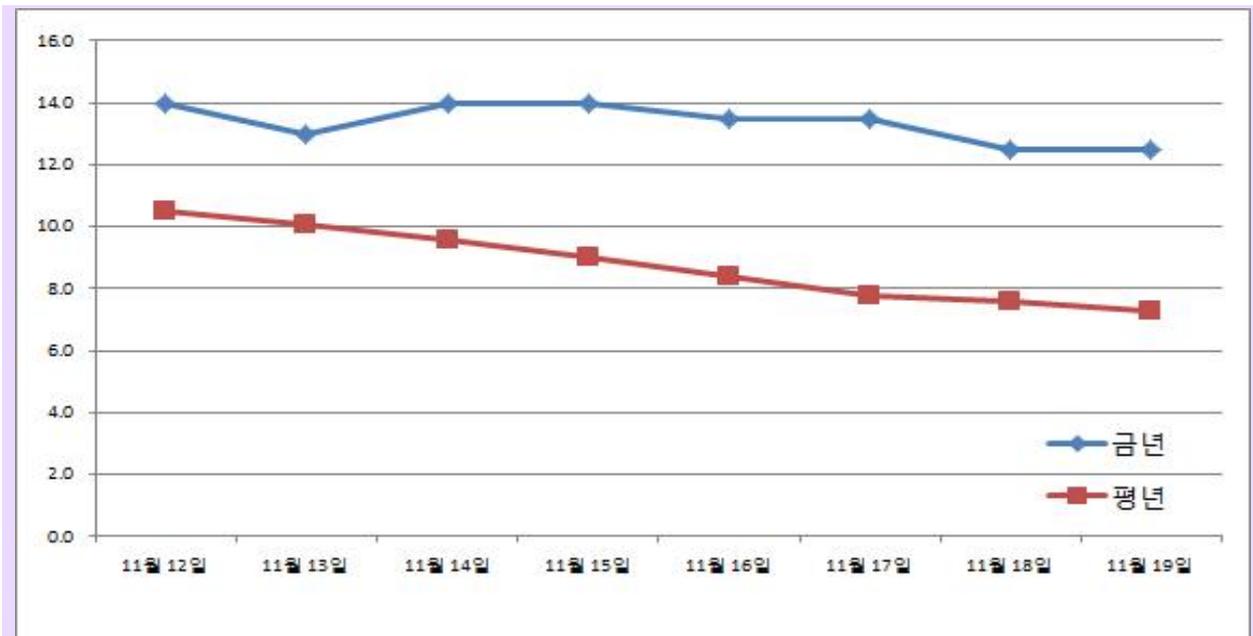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3.4	8.8	4.6	16.5	14.1	2.4	10.3	4.4	2.2	1.5
11월 12일(목)	14	10.5	3.5	18	15.7	2.3	10	6.1	-3.9	1.9
11월 13일(금)	13	10.1	2.9	16	15.4	0.6	10	5.8	-4.2	1.6
11월 14일(토)	14	9.6	4.4	16	14.9	1.1	12	5.2	-6.8	1.6
11월 15일(일)	14	9	5	17	14.3	2.7	11	4.6	6.4	1.4
11월 16일(월)	13.5	8.4	5.1	17	13.6	3.4	10	4	6	1.3
11월 17일(화)	13.5	7.8	5.7	16	13.1	2.9	11	3.5	7.5	1.5
11월 18일(수)	12.5	7.6	4.9	16	13	3	9	3	6	1.4
11월 19일(목)	12.5	7.3	5.2	16	12.8	3.2	9	2.6	6.4	1.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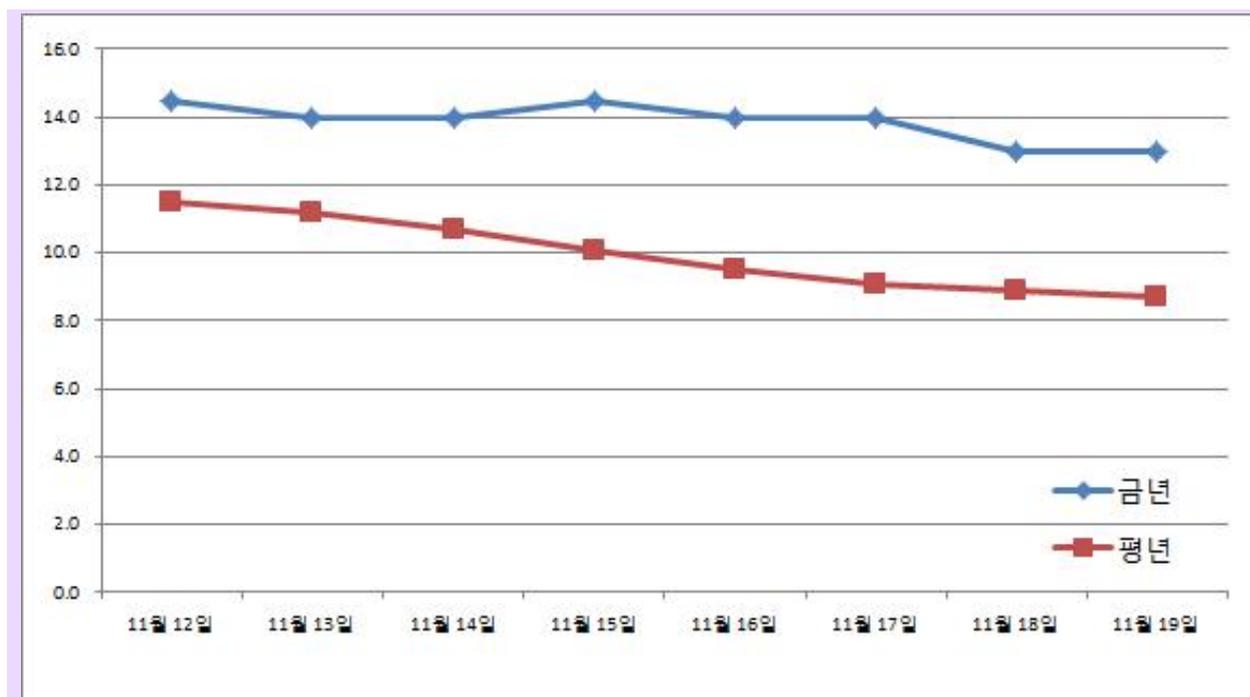


<평균 기온(°C)>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	13.9	10.0	3.9	16.5	14.8	1.7	11.3	6.1	1.9	1.2
11월 12일(목)	14.5	11.5	3	18	16.2	1.8	11	7.8	-3.2	1.5
11월 13일(금)	14	11.2	2.8	16	16	0	12	7.5	-4.5	1
11월 14일(토)	14	10.7	3.3	16	15.5	0.5	12	6.9	-5.1	0.9
11월 15일(일)	14.5	10.1	4.4	17	15	2	12	6.3	5.7	1.1
11월 16일(월)	14	9.5	4.5	17	14.4	2.6	11	5.7	5.3	1.1
11월 17일(화)	14	9.1	4.9	16	13.9	2.1	12	5.3	6.7	1.4
11월 18일(수)	13	8.9	4.1	16	13.8	2.2	10	4.9	5.1	1.3
11월 19일(목)	13	8.7	4.3	16	13.7	2.3	10	4.6	5.4	1.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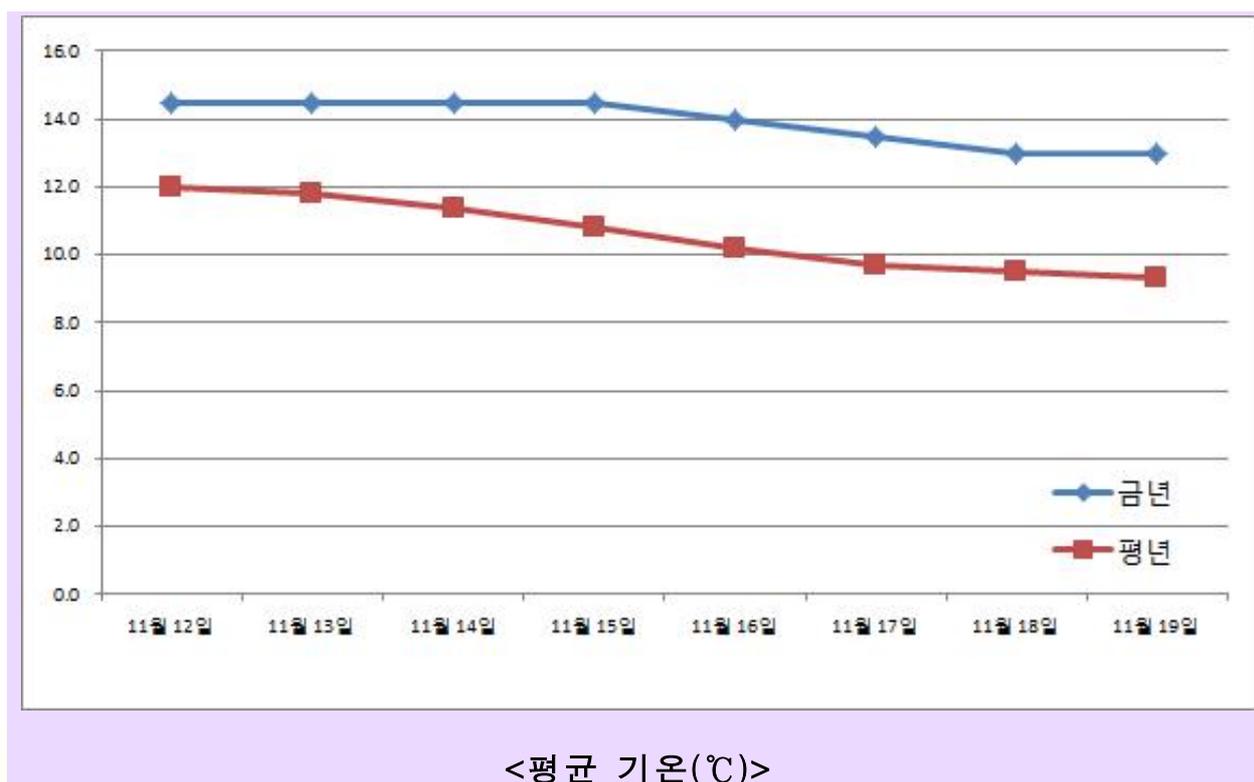


<평균 기온(°C)>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	13.9	10.6	3.4	15.8	14.4	1.4	12.1	7.4	1.7	1.0
11월 12일(목)	14.5	12	2.5	17	15.6	1.4	12	8.9	-3.1	1.5
11월 13일(금)	14.5	11.8	2.7	16	15.5	0.5	13	8.7	-4.3	1.1
11월 14일(토)	14.5	11.4	3.1	16	15.2	0.8	13	8.3	-4.7	0.9
11월 15일(일)	14.5	10.8	3.7	16	14.6	1.4	13	7.7	5.3	0.5
11월 16일(월)	14	10.2	3.8	16	14.1	1.9	12	7	5	0.6
11월 17일(화)	13.5	9.7	3.8	15	13.6	1.4	12	6.5	5.5	1.1
11월 18일(수)	13	9.5	3.5	15	13.4	1.6	11	6.2	4.8	1.1
11월 19일(목)	13	9.3	3.7	15	13.2	1.8	11	5.9	5.1	1.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재배 동향

토마토 · 수박 재배 동향

□ 토마토, 11~12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 11~12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충주, 경남 함안에서 상추 등 타 작목으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식 비중이 높은 부산광역시에서는 일부 화훼농가가 일반토마토로 작목 전환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박, 11~12월 정식의향 작년과 비슷

- 11~12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일부 10월로 정식을 앞당긴 농가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 정식지인 영남지역의 변화가 없어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 내년 1월 시설수박 정식면적은 주산지에서의 면적 변화가 작아 금년 1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양념채소 : 마늘·대파

○ (마늘)

- 11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은 전월의 산지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어 10월(5,191원/kg) 대비 강보합세가 전망

○ (대파)

- 11월 대파 상품 도매가격은 1,400~1,700원/kg, 중품은 1,200~1,500원/kg으로 10월(상품 1,565원) 대비 보합세가 전망된다.

과 일 : 귤·단감

○ (귤)

- 11월 노지온주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1,070원)보다 높은 1,200~1,400원/kg으로 전망된다.

○ (단감)

- 11월 부유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소폭 감소하지만, 사과, 포도, 토마토, 딸기 등 대체과일의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1만 4천원)과 비슷한 13,000~15,000원/상품 10kg으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여수시, '기능성잡곡 산업 육성 시범사업' 평가회 열어

- 감자 부가가치 향상 모델 구축 -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지난달 30일 화양면 옥적리 상전마을에서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 기능성잡곡 산업 육성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 기능성잡곡 산업 육성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올해부터 2년간 매년 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잡곡단지 조성 및 생력화 및 브랜드화, 6차산업화, 가공식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1차 년도인 올해는 잡곡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력기계(노동력 절감 장비)구입과 기계화에 적합한 신제품 보급,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108㎡ 규모의 잡곡 저온저장시설을 준공하고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 잡곡 6차산업화의 기반도 마련했다.
- 이날 평가회는 올해 시범사업 추진경과 설명과 잡곡작황 분석, 여수잡곡 브랜드 디자인 전시, 기계수확 연시, 개선방안 종합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시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능성잡곡 브랜드인 '여수별곡' 디자인을 선보여 농업인과 농촌진흥청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 시 관계자는 "2차 년도인 내년에는 잡곡 가공식품 생산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잡곡 생산면적 확대와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기관 대상 수상

- 친환경비료 공급 확대와 화학비료의 사용량 절감 추진 노력 인정 -
- 올해 친환경 흙 살리기 사업 68억 1천만 원 지원 -
- 광양시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2015년도 친환경비료 공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시는 친환경비료 공급확대와 화학비료의 사용량 절감 추진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2년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영예의 대상을 받게 됐다.
- 시는 올해 친환경 흙 살리기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1,744천포(32억 원), 맞춤형 화학비료 100천포(3억 원), 녹비작물 종자대 370ha(1억 1천만 원), 토양개량제 486천포(13억 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2,330ha(19억 원) 등 총 68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 또 농업인 실용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 현장교육, 이·통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친환경 농업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나종호 농업지원과장은 내년에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 절감과 유기질비료 사용 비율을 늘려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하며, 앞으로 농협 등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전국 최고 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광양시는 오는 11월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친환경비료 담당자 연찬회에서 친환경비료 공급 대상 수상과 함께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출처 : 광양시

■ 담양군, (주)신세계푸드와 업무협약 체결

- 지역 특산물 활용한 신세계푸드 '올반' 신메뉴 개발로 안정적 납품 기대 -

- 담양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지역 생산자 단체와 함께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인 (주)신세계푸드와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최형식 군수를 비롯한 (주)신세계푸드 한동엽 상무, 경기음식연구원 박종숙 원장, 강희식 농정지원단장, 고서농협 조해근 조합장, 창평새벽이슬산지유통영농조합법인 윤일호 대표, 블루베리향토사업단 홍경석 이사, 담양죽순영농조합법인 박영수 대표, 고려전통식품 기순도 명인 등이 참석했다.
-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신세계푸드는 지난 20여년 동안 신세계그룹의 식품공급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면서 식품유통과 제조, 외식, 위탁 급식 등 전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을 갖추 국내의 일류 식품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 또한, 지난 2014년 10월 '올바르게 만들어 반듯하게 차리다'라는 의미의 '올반'이라는 한식 브랜드를 개발, 현재 12개 점포를 운영하며 식재료를 중간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직접 매입해 사용하는 등 기존 한식브랜드와 차별을 두고 한식의 고품격과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죽순 등 대나무와 연계한 겨울 신메뉴를 개발해 올반 12개 점포에 선보일 예정이며, 담양군 주요 관광자원과 농가를 연계한 올반 고객 팸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담양군은 친환경농업의 최대자원인 영산강시원의 깨끗한 농업용수와 대숲에서 발생하는 맑은 공기 속에서 딸기와 멜론, 방울토마토, 죽순, 블루베리, 쌀, 등 다양한 특산물을 생산해 '대숲맑은' 브랜드로 출하하고 있다.
- 최형식 군수는 “협약을 통해 담양 특산물로 신세계푸드 올반 신메뉴가 개발돼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며, 지역 특산물의 납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생산과 판매, 홍보 등 다양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담양군

■ 고급면 유자 맛과 향이 탁월해 소비자에게 인기

- 완도군 고급면 유자 판매에 총력 -

-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본격적인 유자 수확기를 맞아 고급면 유자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 군은 적기 수확과 규격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반을 편성해 순회 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역특산 과수인 유자의 브랜드화와 판매촉진을 위해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난달 30일에는 2일간 '제9회 고급면민의 날 유자축제'를 열어 유자차 만들기, 초코유자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유자 전시회 및 시식회를 열어 유자의 효능을 알렸다.
- 유자는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약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효능을 가진 과일이다.
- 특히,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 이상 많아 감기예방에 좋고, 칼슘은 사과보다 10배 이상 많아 골다공증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고금면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맛과 향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명품 유자로 평가받고 있다.
- 한편, 고금면 210농가에서 생산되는 유자는 연간 1,200톤으로 22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올해 유자는 kg당 2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다.
- 고금면 관계자는 “유자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완도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나주배, ‘맛·품질’ 우수해 덴마크 수출 가능성”

- 강인규시장, 나주 방문한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와 면담 -
- “나주배 수출 성사땀 덴마크를 교두보로 유럽(EU)시장 수출길 열어” -
-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가 2일 나주시를 방문, 강인규 시장과 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배의 덴마크 수출 방안 등에 대해 한 시간여 동안 협의를 가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리만 대사는 "낙농업이 발달된 덴마크는 고품질 농축산물 소비시장과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마켓이 잘 형성돼 있고, 특히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나주배 정도의 맛과 품질이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며 수출 성공을 낙관했다.
- 이어 "한-덴마크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나주배 본국 수출을 위해 바이어 소개, 판촉행사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문제는 가격 경쟁력인데 초기 현지 시장에 진입할 때는 가격을 낮추고 맛과 품질면에서 소비자 반응이 높아질 때 가격을 올리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이에 대해 강인규 시장은 "나주배는 네덜란드가 인증하는 GAP (국제 우수농산물관리인증)를 취득해 덴마크를 비롯, 유럽 시장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며 "미국 시장에서 500g 1과에 1.5달러에 판매 되고 있는데, 1유로 선에서 수출이 가능한지 협의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 이날 리만 대사는 나주배를 현지 소비지들에게 알리는 판촉행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인규 시장의 덴마크 방문과 판촉 행사 개최를 요청했다.

- 강인규 시장은 "초청하면 꼭 방문하겠다."며 "나주배농협, 수출업체 등과 협력해서 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반드시 나주배의 유럽 수출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덴마크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나주배 수출이 성사 될 경우 덴마크를 교두보로 유럽(EU)시장 수출길이 활짝 열리는 등 미국, 대만, 호주에 이어 나주배 수출선이 크게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리만 대사는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APC)과 나주배원예농협 금천선과장을 돌아보며 나주배 유통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출처 : 나주시

■ 국내산 젓소 정액, 우간다에 2년 연속 수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1월 3일 동아프리카 우간다에 인공 수정용 국내산 젓소 정액 4,000개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수출 실적 : 인공 수정용 국내산 젓소 정액 4,000개

- 농식품부는 농협 젓소개량사업소와 함께 지난해부터 우간다 ODA 사업(낙농기술전문가 양성 및 우량 젓소 생산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산 젓소정액 수출을 추진해 왔다.
- 올해에도 판매 및 홍보용으로 냉동정액 4,000개(2천개는 2\$에 판매, 2천개는 홍보용) 수출, 11월3일(우리시간) 우간다 캄팔라 공항에 도착하여 현지통관 절차를 마쳤다.

- 우간다를 포함한 인근 동아프리카 국가는(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2,400만 마리의 젓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하루 생산능력이 1~2kg에 불과해 세계 4위의 생산수준(32kg/일)을 가진 한국산 젓소 정액의 수출시장으로 가치가 크다.
- 한국 젓소 정액이 현지에서 사용될 경우,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낙농기술 등 국내 연관산업의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 농식품부와 농협 젓소개량사업소는 지난해 우간다에 젓소 정액 첫 수출 이후 우간다에 젓소 정액 수출시장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현지 농가컨설팅('14년 12월), 인공수정 교육('15년 3월), 농가 및 농업 관련 공무원 초청('15년 6월) 등을 추진해 왔다.
- 그 결과 현지 일간지에 한국낙농산업의 우수성이 특집으로 소개되고 지난해 수출된 국산 정액으로 태어난 송아지가 현지 송아지 거래가격(180\$)의 3~4배에 거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한류효과, 새마을운동 등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현지 농가들이 한국 축산업에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 젓소 유전자원의 수출과 함께 국내 동물약품, 사료첨가제 등의 현지진출도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부산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유관기관 MOU체결

- 고부가 수산가공품 개발, 중국·할랄 등 신규시장 개척키로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국내 수산식품 약30%를 수출하는 수출 메카인 부산시와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물무역협회 및 해양수산산업 상생협력추진단(해양수산부·대한상공회의소)과 11월 2일 부산시청에서 수출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수출유망품목개발, 할랄식품 개발 및 품질인증을 추진하고, 수협중앙회는 부산 수산식품 판매를, 한국수산물무역협회는 수산식품 수출상담회와 각종 박람회 참가를 지원키로 하였다.
- aT는 해외 11개 지사를 활용, 부산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과 aT사이버거래시스템('14년 매출액 2조 2천억 원)을 활용하여 판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aT는 부산 수산식품 산업이 단순 원물 위주의 냉동보관·유통·수출 등에서 어묵 등의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일본시장 수출 일변도에서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과 새롭게 부각되는 할랄 및 동남아 등 신규시장 개척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 aT 김재수 사장은 “부산시와 aT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협력, 지역 명품 수산식품의 판로를 지원하여 일본 엔화가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산식품 수출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장홍산 표고 백화고, 홍콩 첫 수출길

- 전남도, 홍콩국제식품박람회 참석 성과...5일 24만달러 규모 선적 -

- 전라남도는 지난해 8월 홍콩국제식품박람회에서 발굴한 바이어와 지속적인 수출 협의를 거친 끝에 장홍산 표고버섯 백화고 홍콩시장 첫 수출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수출길은 표고버섯의 최상급인 백화고의 홍콩시장 진출인데다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홍콩시장을 뚫은 것이어서 앞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 전라남도는 표고버섯 수출 확대를 위해 정남진 장홍농협의 홍콩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친환경농수산물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다.
- 이번 첫 수출액은 24만 달러 5.2톤 규모로, 5일 정남진 장홍농협 APC에서 첫 상차작업이 이뤄졌다. 앞으로 홍콩시장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 장수철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농수산물식품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유명 식품박람회에 도 수출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업체들의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해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남진 장홍농협은 표고버섯의 판로 개척을 위해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개설해 국내외 홍보와 수출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채종이 어려운 약초 '지치'의 채종, 안전 재배법 확립

- 4월 하순 파종 후 비가림 재배하여 10월 중순 채종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우리 도의 특산 홍주 색소원료 약초인 지치의 신품종 『대홍』 육성하여 종자 및 생약재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적정 채종 및 비가림 재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두둑 높이 20cm, 폭 90cm로 만들어 흑색 비닐이나 부직포로 피복하고 주간거리 30cm 조간거리 10cm 간격으로 4월 하순에 일찍 파종하여 재배하면 기존 재배 방법보다 종실량은 50%, 지하부 뿌리 수량도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비가림 재배를 하면 지상부 생육이 증가되어 채종량도 45kg/10a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부 뿌리 수량도 비가림을 하지 않는 것(120kg/10a)보다 비가림을 해주는 것이 2.5배 증수되었다고 말했다.
- 채종 시기는 뿌리 비대를 바라는 농가의 인식과 일손 경합 등의 사정에 따라 11월 하순에 채종하는 실정인데, 10월 중순에 채종하는 것이 충실한 종자 확보와 종자 회수율을 높여 종실수량이 많아 적정한 채종 시기로 구명되었다.
- 지치는 뿌리에 색소 성분인 시코닌 등이 들어 있어 해독, 항염증, 항암 등의 효과가 있고 최근에 심혈관 질환 및 관절염 등 치료제로 이용되는 중요한 약재이다.

- 지치는 우리 도 진도에서 주로 재배되는데 전국 60%를 점유하여 생약재로 30%, 홍주 등 식품 원료 60% 소비되고 있으며 물빠짐이 좋지 않는 토양 환경에서 뿌리가 잘 썩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국내 수요량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연구사는 “지치의 채종 및 안전생산 재배를 위해 비가림 재배에서 4월 하순 파종하여 10월 중순에 채종하는 것이 노지재배에서 6월 하순 파종하여 11월 하순에 채종하는 것보다 종자량과 건근 수량이 높아져 10a당 256만원의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FTA, 생산비 절감 등으로 발작물 경쟁력 강화를

- 전남도, 농업인 등 참여 포럼서 농협 계약재배 통한 수급 조절 등 논의 -

- 전라남도는 4일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무안 양파생산자협의회, 농협, 시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마늘양파 등 발작물 경쟁력 강화 포럼을 개최했다.
- 이날 포럼은 FTA 농업분야 협상 동향 및 국내 대책, 한국과 중국 농업의 비교, 양파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설명, 농업인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특히 박정훈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정해율 전 여수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영남 전남서남부 채소농협 조합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농업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받기반 정비 확대, 지역 적응형 마늘양파 파종 수확기계 개발 등 다양한 정책 건의도 잇따랐다.

- 주제발표를 한 김재왕 신미네유통사업단 부설연구소장은 마늘양과 산업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경쟁력 제고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 마늘의 10a당 생산성은 중국이 1천 299kg으로 제주(1천 590kg)와 경남(1천 499kg)보다는 낮고 전남(1천 116kg)보다는 높다.
- 가격측면에서 신선마늘은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나, 중국산 냉동마늘이 국내 가격의 40% 미만이기 때문에 국산 냉동마늘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 마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역 적응형 농기계 개발, 고품질 표준재배기술 확립,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확대, 경작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창출 등이 절실하다.
- 또 양과는 현행 관세를 적용할 경우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으나, 저율할당관세(TRQ) 또는 무관세의 경우 중국산 양과 가격이 국산의 46~67% 수준이므로 경쟁력이 약하다.
- 양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농업 관측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통한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협, 서남부채소조합 등을 활용한 안정적 계약재배를 추진해야 한다.
- 이밖에도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정훈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농업인에게 국내외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최신 정보와 농업기상 등 농업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남의 농업 정보팀과 20개 주요 작목의 생산비 절감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팀의 운영 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김진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은 한중 FTA로 발작물 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전남 주요 발작물인 양파와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마늘 양파의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 향상을 위한 창조적인 지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자”고 당부했다.
- 전라남도는 무역이익 공유제 시행, 받기반 정비사업 확대, 발농업 기계화율 제고, 주요 곡물 자급률 목표 상향,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등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도록 강력 건의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토마토궤양병 방제, 재배 환경 위생이 중요

- 농촌진흥청, 토마토궤양병 방제 요령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토마토궤양병 방제 요령을 소개하고, 토마토 재배농가에서 방제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토마토궤양병은 토마토 재배 중 가장 방제하기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24℃~32℃에서 많이 발생한다. 궤양병에 걸린 토마토는 잎이 시들거나 줄기가 갈라지다 죽으며, 수확량도 10%~20% 감소한다.
- 국내에서는 1997년 처음 발생했으며, 2007년 이후 해마다 관련 민원이 늘고 있어 철저한 방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 토마토궤양병은 효과적인 방제 약제가 없기 때문에 종자를 소독해 1차 전염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종자 소독은 열처리와 표면 살균 방법을 이용한다.

- 열처리 방법은 궤양병 감염 의심 종자를 55℃에서 25분간 온탕 처리 후 즉시 차가운 물에 담가 온도를 내린 뒤 말려서 병원균을 없앤다.
- 표면살균 방법은 종자 표면의 세균을 없애는 방법으로 종자 100g당 차아염소산나트륨계 1% 용액 850mL를 사용해 1분 동안 섞거나 1.1% 염산에 30분 담근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해 말린다.
- 재배 환경과 농기구를 관리해 1차 및 2차 전염원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 하우스 내의 농기구, 작업대, 육묘상자 등을 차아염소산나트륨계 0.5%~1% 용액으로 철저히 표면 살균을 한다. 감염된 하우스에서 순을 자를 때 사용한 가위는 알코올이나 염소계 용액으로 소독 후 보관한다.
- 재배가 끝난 후에는 남은 토마토를 깨끗이 치우고, 하우스 밖에서 자라는 잡초는 세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제거한다.
- 토양을 살균해 토양 내 생존하는 전염원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 햇볕이 좋을 때 하우스 토양 표면에 투명 비닐을 덮고 6주~7주 놔두면 토양 속이나 병든 토마토 잔재물에 존재하는 세균을 죽일 수 있어 다음 재배 시 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또한, 토양을 따뜻하게 만들고 수분을 늘려 식물잔재물이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하면 토양 속 세균 밀도를 줄일 수 있다.
- 감염된 하우스는 작업이 모두 끝난 후 문을 폐쇄하면 내부 온도가 올라가 세균을 없앨 수 있어 방제에 도움이 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명인식 연구사는 “토마토궤양병은 재배 환경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만약 1차 감염이 확인될 경우 쿠퍼제를 뿌려 다른 토마토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병과 재해에 강해 수량 많은 콩, 대풍2호 개발

- 10아르당 345kg, 가장 많이 재배되는 ‘대원’콩 보다 21% 많아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병과 재해에 강해 수량 많은 콩 ‘대풍 2호’를 개발했다.
- 이번에 개발된 ‘대풍2호’는 기존 다수확 품종 ‘대풍’콩의 단점인 담갈색 배꼽, 선택 불량 등을 개선한 품종이다.
- 수량은 10a당 345kg으로 ‘대풍’콩과 비슷한 수준이고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대원’콩보다는 21% 많다.
- ‘대풍2호’는 배꼽색이 없고 종자 색이 좋은 콩을 생산할 수 있으며, 불마름병과 쓰러짐에 강하고 콩이 익은 후 콩알이 잘 튀지 않는다. 또한, 두부와 메주, 청국장 제조 수율이 높다.
- 시험 재배 결과, ‘대풍2호’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원’콩보다 수량이 많았지만 종자의 크기가 중간 정도이므로 종자가 작아지는 남부보다 중부 이북 지방에서 재배하기에 알맞다.
- 종자는 실증 재배와 종자 생산 단계를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과 오인석 과장은 “최근의 잦은 기상 변화로 콩의 작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해에 강하고 판로의 확보가 용이한 ‘대풍2호’는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14호 발표

- 시설재배 농작물 주요 병해충 방제관리 발표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11월 5일 시설원예작물에서 많이 발생되는 노균병, 흰가루병, 총채벌레 등 주요 병해충 관리요령을 중심으로 제14호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노력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 겨울철 시설하우스를 통해 재배되는 오이, 상추, 토마토 등 시설작물은 야간 온도관리와 적절한 웃거름 주기, 병해충 예찰 등 포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시설하우스는 겨울철에 습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저온다습의 조건에서 발생하기 쉬운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환기, 보온대책을 세워 병발생 환경을 차단해야 한다.
- 특히,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병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병을 옮기는 총채벌레와 담배가루이의 초기 방제가 중요하며, 끈끈이 트랩 등을 설치하는 등 발생예찰을 강화하고 초기에 적용약제를 번갈아 가며 살포해야 한다.
- 딸기에서는 점박이 응애, 진딧물 등 해충 발생에 주의해야 하며 딸기세균모무늬병은 모주를 통해 점염되므로 병에 걸린 포기는 제거하여 땅에 묻거나 소각하여야 하며, 병에 걸렸던 포장의 딸기는 모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겨울철 시설재배 작물의 주요 병해충을 중심으로 예찰과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국산 조직배양 묘목 대량생산 기술력 확보

- 고부가 웰빙 원예작목 건전묘 생산 연구에 선두 -

- 웰빙·힐링 시대에 부응한 건강푸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작목의 국내 재배면적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재래방식의 묘목 번식법으로는 건전 묘목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묘목 가격까지 높아 농업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웰빙 원예작목 중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산 묘목의 시장을 안정화 시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망작목의 조직배양묘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고소득 작목인 두릅나무, 오디 뽕나무, 양앵두 대목, 블랙베리 나무의 잎 눈과 잎 절편으로부터 어린 식물체를 형성시키고 1년 내에 유묘로 키울 수 있는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우량 무병 묘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업화 기술을 확립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 건전한 묘목을 단기간 내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국산 배양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묘목 물량의 20% 정도를 국산묘로 대체할 수 있고 묘목 생산비용까지 절반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허윤선 농업연구사는 “국산 배양묘의 재배적 특성까지 입증할 수 있는 실증 연구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국산 묘목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는데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버섯 수출' 국제무대에서 신뢰도 상승

- 일본 돗토리현 '아시아버섯학회'에서 경북지역 버섯 수출 및 우수성 소개 -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市)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버섯학회'에서 경상북도의 버섯 수출 현황 및 우수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는 미국, 호주, 네덜란드, 베트남 등 전세계로 수출되는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품목의 전국 수출량에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팽이버섯은 총 수출액이 2009년에 81%가량 증가했고 2010년에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해 최대수출량(9,415톤)과 최대수출액(14,840천\$)을 기록했다.
 - 이렇게 경북지역의 버섯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공장형 재배방식 도입으로 연중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자동화 설비와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버섯 품질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아시아버섯학회'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버섯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각국 버섯의 특성과 재배기술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회이다.
 - 아시아지역 연구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학회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표고버섯재배기술(Tan Qi, 상해식용균연구소), 분자생물학 이용 버섯육종기술(Y. Honda, 교토대학), 팽이버섯 육종기술(공원식,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 서동환 연구개발국장은 "이번 학회를 통해 경상북도에서 수출되는 버섯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버섯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처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순우리말 농업용어 사용해요

- 전남도, 11일 농업인의 날 어려운 용어 다듬어 사용하기 운동 -

- 전라남도가 오는 11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어려운 농업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순우리말 농업용어 사용' 운동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 농업용어 순화 사용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농업 용어 109개를 골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농식품부는 매월 '이달의 순우리말 농업용어'를 5개씩 선정해 해당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10월에는 흔히 쓰이는 말과 겹쳐 농업용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한자어 시비, 수도, 위조, 도복, 천식 5단어를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시비는 비료주기, 수도는 논벼, 위조는 시뚯, 도복은 쓰러짐, 천식은 얇게 심기로 각각 다듬었다.
-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농식품부와 함께 우리말 농업용어의 주민 사용 확산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과 각종 농업인 행사, 영농교육 추진 시 순우리말 농업용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 주민과 소통하는 농업 용어 109개 및 '이달의 순우리말 농업용어'는 전라남도과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진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농업용어가 외래어, 한자어 등으로 불분명하고 어렵게만 사용됐지만, 앞으로 순우리말 농업용어로 다듬어 사용하면 농업인,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행정기관이 앞장서 순우리말 농업용어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양파농가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하세요

- 무안함평서 시범 실시...27일까지 농협서 접수 -
- 전라남도는 무안과 함평지역 양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농협에서 ‘농업수입보장보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줄거나 시장 가격이 하락해 농가 수입이 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종합 경영안정제도다.
- 올해 가입 대상 품목은 전국적으로 양파와 포도, 콩 등이 선정돼 주산지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며, 전남의 경우 양파를 대상으로 무안과 함평지역에서 실시된다.
-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 감소만을 보장하는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을 일부 보완해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실제 수입이 보장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보험료는 정부에서 50%를 부담해준다. 여기에 전라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율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30%를 추가 지원해 실제 농가 보험료 부담은 20%로 낮췄다.

- 이에 따라 4천 500㎡(1천 360평) 재배 농가에서 보험 가입금액 600만 원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경우 농가 부담 보험료는 10만 8천 원 수준이다.
- 양파를 1천 500㎡(450평) 이상 재배하는 무안, 함평지역 농업인 이면 누구나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는 물론 가격 하락까지 보장해주는 종합적인 수입안정 제도”라며 “예고 없는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고 양파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농가에서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 양파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시범 실시되는 무안과 함평지역의 양파 재배 면적은 4천 479ha로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식품 공공데이터 이렇게 활용 할 수 있어요!

- ‘2015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민간에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5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는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농식품부 본부를 포함한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총 15개 기관 405종의 공공데이터를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을 통해 제공해오고 있으며,

○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주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공모접수를 진행한 이번 경진대회는 응모작 71개 중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 개발 부문 4개, 아이디어 기획 부문 5개 등 총 9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 분야별 우수작을 살펴보면,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는 농촌빈집정보 웹서비스를 선보인 ‘전원일기’ 팀이 1위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한눈에 농촌 주택 및 그 주변 지역을 알아 볼 수 있는 로드맵과 위성지도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그래프를 제공한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날씨와 병해충, 친환경자재, 농약자재 정보를 연동하여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영농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기획한 ‘파밍’팀이 1위로 선정됐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 경진대회 수상작들이 실제 사업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홍보, 컨설팅 등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수상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data.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마음모아 희망농촌, 행복담아 미래농업’

-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마음모아 희망농촌, 행복담아 미래농업’을 주제로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 올해는 농업인의 날이 제정된지 20주년 되는 해로 농업계는 연초부터 국민농업헌장 마련, 기념곡 선정 등 농업의 소중함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해왔다.
- 최근 한·중 FTA 비준 논의의 진전 등으로 농업계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에게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민에게는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알리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의 유래 >

- 농업인의 삶과 함께하는 흙 토(土)자를 나누면 십(十)과 일(一)이 되는 점에 착안하여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
-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는 강원도 원주로, 1964년 농사개량구락부 원성군연합회가 주관하여 11월11일에 「농민의 날」 행사를 최초 개최

- 이번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창립 이래 계속 수원에 등지를 틀고 우리나라 농업기술 발전과 생산력 향상에 전념해온 농촌진흥청이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여 농촌진흥청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 정부, 국회 및 농업계 주요 인사들과 농업인들이 참석하여 올해도 풍성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에 전념한 농업인의 노고를 치하

하고 격려한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벌꿀로 프로폴리스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설악양봉원 대표 조성봉(67세)씨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총 129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 조성봉씨는 한-베트남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봉산업에 기술 혁신과 6차산업화를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희망을 보여준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 그리고, 작년 5월부터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안을 잡고 수차례의 간담회, 공청회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국민 농업헌장을 선포하여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민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 또한, 지난 8월 국민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농업인의 날’ 주제곡을 초연하며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만든다.

□ 이에 앞서 농업인과 국민이 소통하며 흥겹게 어우러지는 잔치 마당인 ‘우리농축산물 어울림 한마당’을 11월 5일(목)부터 7일(토)까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한다.

○ 5일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개막식에는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인 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대형 연을 하늘로 띄우며 농업·농촌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기원한다.

○ 행사기간 동안 전국의 농업인단체들이 합동으로 직거래 장터를 열어 우수한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농업·농촌 체험관과 홍보관에서는 농업·농촌의 발전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이와 더불어, 특집 음악회와 두레 품물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국밥과 쌀국수 등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나누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풍성한 자리를 마련한다.

□ 이동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올 한해 어려움 속에서도 풍년 농사를 일궈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인사하고,

○ “한중 FTA 비준과 쌀 관세율 감증을 앞두고 있는 등 농업이 마주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최근 쌀과 삼계탕,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는 것과 같이 기회의 창도 열리고 있다.”며 다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강조하고,

○ “정부도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 소통, 배려’를 기본 철학으로 조직화·규모화, ICT 융복합 및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아울러, “우리 국민 모두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농촌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미국, 자연방사를 통해 생산된 계란 수요 확대

- 자연방사(cage-free)를 통해 생산된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연방사를 통해 사육된 닭이 비(非)자연방사 사육 닭보다 스트레스가 적으며 적당한 지방과 근육이 발달된다고 함.
- 자연방사 닭과 계란의 장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앞으로 점점 더 닭장에 갇혀있는 암탉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Packaged Facts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계란 판매의 90%는 닭장 속에서 암탉이 낳은 계란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소비자들이 “자연산”과 “오가닉” 등의 상품을 찾는 추세에 따라 변화될 것이라고 함.
- 한 전문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연방사 계란이 몇몇 농장이나, 농장주들을 통해서만 유통되었지만, 이제는 주요 유통마켓 어디를 가든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글로벌 커피프랜차이즈 스타벅스는 향후 5년 내 자연방사 계란만 사용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이달 1일 발표하였음. 스타벅스는 업체 중 처음으로 2008년 방사란을 사용하였으며, 꾸준히 사용량을 늘리는 추세임.
- 또한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는 미국 및 캐나다 매장에서 닭장에서 생산된 계란 사용을 중단하고 자연방사를 통해 생산된 계란만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버거킹 또한 2017년까지 자연방사를 통해 생산된 계란만을 사용하겠다고 언급하였음.

- 이러한 추세에도 자연방사 계란 확대를 가로막는 것은 '비용'임. 미국 양계협회에 따르면 자연방사를 하는 경우, 사육비용은 약 36% 증가한다고 함. 현재 양계업자들의 반발이 크지만 소비자와 글로벌 기업들의 변화에 따라 양계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국, 엘니뇨현상에 따른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세 전망

-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에 따르면 최근 3주 동안 주요 농산물 가격이 설탕은 31%, 유제품류는 36% 급등하였으며, 팜오일(야자유)은 13.1%, 밀은 6.1% 증가되었다고 함.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9월 세계식품가격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함.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향후 비(非)에너지상품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엘니뇨로 인한 가뭄이 극심해지자 곡물 생산량 예상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음.
- 베트남 커피·코코아협회(Vietnam Coffee and Cocoa Association, Vicofa)는 커피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태국의 쌀 수출협회도 15~20% 정도 수확량 감소를 전망하였음.
- 호주도 밀 수확량이 예상보다 200만톤 이상 감소한 2,53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WSJ은 팜오일가격 상승에 따라 팜오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함.
-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남미 전역에 걸쳐 특히 극심할 것으로 보임. 미국 등 북반구는 최근 한창 수확이 진행되고 있지만, 남반구는 이제부터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임.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엘니뇨현상임. 엘니뇨현상은 적도 부근 무역풍이 해수면 온도를 끌어올려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를 유발하는 현상임.
- 문제는 내년에도 더 강력한 엘니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임.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WMO)는 1950년 이후 65년 만에 최악의 엘니뇨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엘니뇨현상은 겨울이 될수록 심해짐.
- WSJ에 따르면 엘니뇨현상의 영향이 농산물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함. 이는 추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임. 국제통화기금(IMF)은 관련 보고서에서 엘니뇨현상이 시작된 후 약 1년 동안 비(非)에너지상품 가격이 평균 5.3% 오른다고 언급하였음.
- 이러한 기후변화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한국 기업 중 CJ가 설탕을 대체할 만한 타가토스, 알룰로스 등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임. 설탕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에 대응할만한 대체품목이 필요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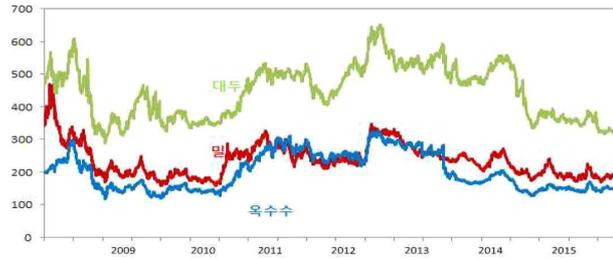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1. 9.(시카고 선물거래소)

달러화 강세로 옥수수가격 두달래 최저치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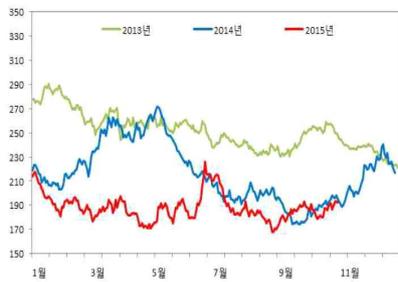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1.6)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0)	2014 평균
밀	192.24	▼0.6%	186	216
옥수수	146.84	▼0.4%	151	164
대두	320.11	▲0.4%	327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경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금리인상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이 떠난 후 7개월 만에 1%이상 상승한 달러화의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함. USDA는 10월 29일 주간 2015/16년물 84,600톤의 밀이 수출됐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는 9월24일 이후 30~50만톤을 예상했던 범위보다 훨씬 하회하는 수준임.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인해 두달래 최저가격에 인접함. 이러한 달러화 강세는 옥수수 풍작과 더불어 미국산 곡물이 세계에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USDA는 내주 발간될 월간보고서를 통해 수출수요 부진과 미국내 옥수수 수확으로 기말재고량이 당초보다 증가하여 전망할 것으로 보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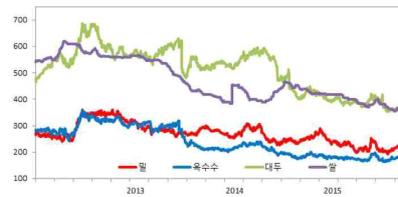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9월 24일 최저가격 계약 이후 0.4% 강보합 마감하였으나, 내주 보고될 USDA 월간 보고서에서 밀, 옥수수와 함께 풍작등으로 인해 기말재고량을 확대 보고될 전망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USDA 주간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우호적인 작황 날씨로 인해 대두 수확도 95%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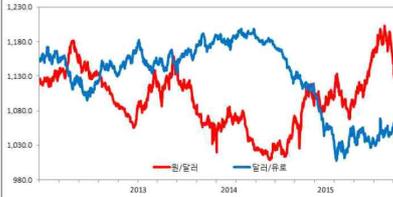
관련동향

- 옥수수 수출가격은 지속적인 수요부진과 풍작, 타 주요산지와외의 가격 경쟁력 약세로 하락
-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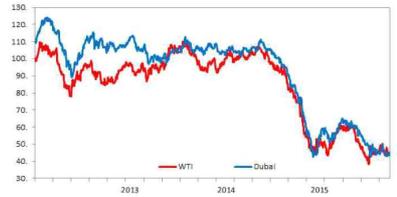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23	-	원/달러	1137.1 ▲0.7%
	옥수수	177	▼1.1%	달러/유로	1.0881 ▲0.1%
	대두	350	▼1.4%	WTI	44.29 ▼2.0%
	쌀	366	▼1.1%	Dubai	43.16 ▼1.2%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1.5(수출가격), '15.11.6(환율), '15.11.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맥주보리 생산비절감 경영모델화 사업 시연회

- 일 시 : '15. 11. 13.(수) 14:00~17:00
- 장 소 :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 1009-4번지
* 2015년 맥주보리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사업 대표농가(박석호) 포장
- 계획인원 : 60명(농업인 및 관계 공무원)
- 주요내용
 - 신제품 맥주보리 육성 현황 및 품종별 특성 교육
 - (시연) 승용 측조시비 다기능 파종기 활용 생산비 절감
 - (전시) 승용 측조시비 다기능 파종기, 트랙터 부착형 동력 진압기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이벤트

- “우리 농식품으로 11을 만들어 주세요” -

11월 11일은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농식품으로 숫자 ‘11’을 만들어 본인 SNS(페이스북, 카카오톡)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쌀, 가래떡, 가지, 오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11’을 만들어서, 해시태그(#농업인의날_11)를 걸어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에 함께 하고 싶은 친구도 태그해주세요.

*이벤트 참여 사진은 추후 SNS 콘텐츠로 가공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농식품으로 ‘11’을 만든 후 인증샷을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해시태그(#농업인의날_11)를 걸어 올려주세요.

이벤트 기간

11월 9일(월) ~ 11월 13일(금)

당첨자 발표

11월 17일(화)

경품



농촌관광사랑상품권
10만원권 (10명)



농촌관광사랑상품권
5만원권 (20명)



우리쌀 10kg
(50명)



주간
전남농업정보 59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